



꿈을 만들어 가는 진로 진학교실

경기진학정보센터

발행처 : 경기진학정보센터 집필진 : 꿈진집필위원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의미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1. 시행

2025년 6월 4일에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이하 6월 모의평가)는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이며, 탐구영역(사회/과학)은 선택과목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탐구영역(직업)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개 과목을 응시할 경우 '성공적인 직업생활+전문교과 선택과목(5개)', 1개 과목을 응시할 경우 '전문교과 선택과목(5개)'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EBS수능교재와 연계하여 출제되는데,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을 토대로 하여 보통 문항 수 기준 50% 수준으로 연계됩니다.

각 영역별 출제범위도 중요합니다. 국어영역, 영어영역, 수학영역 공통과목(수학Ⅰ, 수학Ⅱ), 한국사영역, 탐구영역(사회), 탐구영역(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은 출제범위가 전체 범위입니다. 그러나 수학영역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과 탐구영역(과학/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은 출제범위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의미

6월 모의평가는 다음의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의미가 많습니다.

첫째,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이 응시할 수 있는데,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전체 응시자 중 졸업생, 검정고시생 등의 비율이 17.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실시된 2회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결과보다 6월 모의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성적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시작으로 하여, 9월 모의평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 문제 유형, 필요로 하는 사고력 등이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 Ⅰ 최근 2개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평가 지원자 현황 Ⅰ

구분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년 6월 시행)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4년 9월 시행)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4년 11월 시행)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5년 6월 시행)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재학생	385,435	81.3	381,733	78.2	302,589	65.3	413,685	82.2
졸업생 등	88,698	18.7	106,559	21.8	160,897	34.7	89,887	17.8
합계	474,133	100.0	488,292	100.0	463,486	100.0	503,572	100.0

## ▶ 대입 지원 전략 및 활동 전략 수립

6월 모의평가는 자신의 과목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습관과 생활 전반의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담임교사나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얻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에서 제공하는 각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가능 대학과 전형 유형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대한 대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1. 학습·생활 활동 전략

6월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취약 단원을 진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단순한 암기에 머무르지 말고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실전 연습으로 연결하는 단계별 학습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이후에도 평가원 유형의 문제를 꾸준히 학습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시간 압박이 큰 과목은 문항별 풀이 시간을 점검하여 해결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실제 시험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수면과 식사, 가벼운 신체 활동 등을 통해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수시모집 준비 방법

#### (1) 교과 성적 관리 및 교내 활동 내실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 실기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학생부 교과성적을 '학업역량', '진로역량' 등에 입각하여 정성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 관리에 각별히 힘써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다양한 활동 및 학생의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아가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부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내 활동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2)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한 공부 방향 설계

수험생이 수시모집 6회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된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등 관심 대학과 해당 전형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수시모집 전형요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나누어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은 상향 지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2024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실질경쟁률 예시(학생부교과전형) ▶

대학	계열/학과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N:1)	총원율(%)	최저충족률(%)	실질경쟁률(N:1)
가톨릭대	경영학과	7	52	7.43	314.3	73.1	5.43
	약학과	4	45	11.25	175.0	33.3	3.75
고려대	의과대학	18	422	23.44	133.3	32.5	7.61
	자유전공	21	91	4.33	114.3	62.2	2.71
서강대	인문학부	14	102	7.29	464.3	14.7	1.05
	전자공학과	11	106	9.64	245.5	22.6	2.22

※ 실질경쟁률: 최저충족자수/모집인원

### 3. 정시모집 준비 방법

#### (1) 전형요강 파악

같은 대학의 학과라 할 지라도 모집시기, 모집인원 등이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대학(학과)별로 각 영역의 세부 반영 비율, 과목별 환산점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 8월 말에 발표하는 정시모집 전형요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를 통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동기 부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선택과목 전략 수립

2026학년도에는 수학영역과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을 지정했던 대학들이 선택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수학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 탐구영역에서 과학 선택과목을 지정한 대학은 2025학년도 33개 대학에서 2026학년도 27개 대학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대학별로 수시모집의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 수학영역이나 탐구영역 등의 필수 반영 영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정시모집에서 선택과목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절한 선택과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202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응시자의 탐구영역별 응시자 현황 Ⅱ

구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소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4학년도 수능	사회	166,128	86.4	17,494	8.1	2,291	13.5	185,913	43.6
	과학	10,340	5.4	188,953	86.9	13,560	79.7	212,853	49.9
	사회+과학	7,788	4.0	6,761	3.1	661	3.9	15,210	3.5
2025학년도 수능	사회	170,541	84.3	35,268	15.5	3,659	26.7	209,468	47.3
	과학	10,944	5.4	155,142	68.3	7,860	57.2	173,946	39.2
	사회+과학	12,489	6.2	32,648	14.4	1,749	12.7	46,886	10.6

※ 비율은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 중 탐구영역별(사회/과학/사회+과학/직업/미응시) 응시 비율임.

2024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영역 '미적분' 선택자 중 탐구영역을 '사회+과학' 조합으로 응시한 비율은 3.1%였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이 비율이 14.4%로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영역 '기하' 선택자의 경우, 2024학년도에는 '사회+과학' 조합 비율이 3.9%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12.7%로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기존에 주로 선택하던 '과학+과학' 조합 대신 '사회+과학' 조합을 점차 선택하고 있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험 전략의 다변화와 함께 대학별 전형 요소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조합 선택 방식 변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선택 경향만을 기준으로 과목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단순히 선택 비율이나 과목의 체감 난이도만 고려하기보다는, 대학별 환산점 기준에 따른 유효리를 정확히 계산하고, 자신의 목표 대학 및 학과의 전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1. 202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보도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실시, 출제방향 보도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2026학년도 대입정보 119(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공 교육기관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